

중남부권 중핵도시 장흥군 '힐링강소특구' 비전 선포

2030종합발전계획 9대 핵심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문림의향 전국화·관광인프라 구축·블루에너지산업 등 추진

전남 중남부권 중핵도시인 장흥군이 '힐링강소특구'로서의 비전을 선포했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9대 핵심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은 전남 중남부권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남부권 중핵도시 힐링강소특구 장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9대 핵심사업과 26개 세부사업,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발표됐다. 9대 핵심사업은 ▲문림의향 전국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환경 조성 ▲바이오 웰에이징 클러스터 구축 ▲정년역량의 지역 핵심역량화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블루에너지산업 육성 ▲1차산업 역량 강화 ▲참여형 행정 시스템 구축 ▲지역발전 특수과제의 체계적 운영 등이다. 문림의향 전국화를 위해서는 현대문학 거장 문학관 건립, 장남진 나루터 이야기촌 조성, 문화장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장흥의 탄탄한 문화, 역사, 향토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재구성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자리 확산, 은퇴자 유입에 나선다. 정년역량을 지역 핵심역량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도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조성해 청년의 문화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활성화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의 토요일



장흥군은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2030 종합발전계획 9대 핵심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장 참여를 활성화해 청년창업 효과를 높이고, 토요일 시장 참여 플랫폼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을 운영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광인프라 확대, 친환경 농업 활성화, 주민참여 플랫폼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을 운영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푸드플랜 연계 공모사업 장성군, 5개 잇따라 선정 직매장 건립 등 54억 투자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플랜 연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선정된 공모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3억9000만원 규모다. 장성군은 광주권에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장성군과 농협간 상생협력사업도 추진된다. 장성군은 상무대 등 군부대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삼서농협에 저온유통시설과 직거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양과 주산지인 삼계농협에는 발착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 가공시설과 경영체 조직화를 지원한다. 로컬푸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 분석'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지난 5월 농식품부의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전국 2위로 선정됐다. 현재 신규 출하농가 교육 등 본격적인 로컬푸드 생산·소비활동 추진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과 NGO단체 대표들이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맺고 가족친화도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이어 '아동친화도시' 인증

장흥군이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았다. 장흥군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이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지위까지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전국 군(郡)단위에서는 5번째, 전남 군단위에서는 처음이다. 아동, 여성의 권리 향상과 주민 의견 개선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결

과라고 장흥군은 자평했다. 장흥군은 2018년 10월 아동 친화팀을 신설해 유니세프, 아동 복지 NGO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 장흥이 꿈꾸는 미래'를 비전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한 끝에 인증에 성공했다. 장흥군은 앞서 지난 2011년 전국 군단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2016년 여성 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재지정에 실패했다가 지난 2018년 1월 다시 지정됐다. 장흥군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비대면 농산물 판로 확대 주력

택배비·포장재 지원 사업 대폭 늘려 10억7500만원 투입

화순군이 온라인 쇼핑 문화와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확대에 대응해 택배비·포장재 지원 사업을 크게 늘리는 등 비대면 농산물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4개 택배비 지원 사업, 4개 포장재 지원 사업에 총 10억7500만원을 투입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섰다. TV와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쌀을 판매하는 화순농협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화순 쌀 택배비 지원 사업' 규모가 가장 크게 늘었다. 직거래 장터와 비교해 효율성이 높고 단시간에 높은 판매율이 보장된 TV 홈쇼핑 판매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해 화순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4500만원을 지원했던 화순 쌀 택배비 지원금 규모는 올해 2억원으로 증액했다. 현재까지 2

억원 중 1억2000만원을 집행해 온라인 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뿐 아니라 농가를 지원하는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도 실시 중이다. 지역의 1300여 쌀 생산 농가들은 약 9000명의 대도시 소비자들과 약 9만건의 직거래를 하고 있다. 화순군은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건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억1100만원을 지원한다. 복숭아, 파프리카 등 화순지역의 8개 농특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고객 확보 택배비'도 지원하고 있다. 고정고객 확보 택배비는 건당 1400원씩, 매년 2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난해 1억5000만원이

던 집행액이 올해는 10월 기준 집행액이 1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전남도와 함께 전남 쌀 유통비를 지원하는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에는 매년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등 타 사·도의 평생 고객 확보와 타 사·도 학교급식납품의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무농약, 유기농 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래 화순 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택배비, 포장재 등 지원 사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 시장이 크게 확대된 만큼 농특산물 판로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판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 550kW급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장 등 3곳 설치...연간 3억여원 전기요금 절감 기대

화순군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자 55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동면 공공폐수처리장,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 등 3곳에 총 발전용량 550kW급 설비를 확충한다. 화순군은 연간 3억3800만원가량 전기요금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를 기대한다. 총사업비는 15억9600만원인데 국비 7억9800만원은 환경부가 주관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서 확보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그린뉴딜 사업 8대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남에서는 화순군과 광양시가 이번 공모에서 선



화순군 화순읍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정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저탄소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 상상 (앤솔로지)
-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 오랜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게요 최지하
- 새, 블랙박스 양수덕
-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 메타자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 8월 발간 예정
장영주 시집